

협회소식

제2회 理事會 개최



2월18일 오후 2시 부터 安箕泰 회장 主率로 회의실에서 제2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87년도 제1회 臨時總會 : 3월27일(금) 오전 10시 부터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
- 工事監理運營指針改正(안) : 建築士法 제23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調査 및 檢査業務 代行에 따라 본협회에서 제정한 工事監理業務運營指針 제6조(監理費支拂)에서 공사 감리비를 감리자 업무 배정시 감리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사항을 현행 보수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바 각 支部別로 개정에

다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검토한 후에 결정 하기로 일단 留保.

- 獨立豫算制 施行에 따른 定款改正方針 : 배부된 정관개정(안)을 參考, 그에 대한 의견을 2월 말까지 제출 취합 검토하여 차기 理事會에서 협의 결정키로 함.
- 多世帶住宅 設計指針圖 제작 : 본협회에서 작성, 건설부에 제출 보고한 바 있는 設計指針圖를 전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급키로 협의.
- 建築誌 發刊 : 우리나라 建築物를 時代別 地域別 用途別로 구분, 集大成한 建築誌(假題)를 발간키로 협의

建築誌(假題)諮問協議會 개최

3월7일 오전 7시30분 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安箕泰 회장 주재 아래 建築誌 발간을 위한 諮問協議會를 개최 하였다. 安箕泰 회장은 <우리나라 전통건축 부터 현대건축까지 망라한 建築誌로서 建築士 역할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건축문화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를 발간코자 하고 발간 취지를 설명 하였으며 자문회의회 참석인사들은 安箕泰 회장으로부터 추진배경을 들은 다음 발간준비를 위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建築誌(假題)의 발간협의를 위해 구성한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 안장원 • 이문우 • 김우성
- 권희용 • 임정의 • 조성룡

- 강철구 • 김정동

柳春秀 회원 大賞

'87경향하우징페어 건축사주택설계작품 전시회에 출품한 건축사사무소 이공 柳春秀 소장이 삼하리A씨택을 출품하여 영예의 大賞(상금 1백50만원)을 차지 하였다.

'87경향하우징페어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인데 3월28일 여의도에 있는 한국 기계공업 진흥회 전시관에서 개막되어 일반에게 4월 6일까지 10일간 공개 된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수상자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 金賞(상패 · 상금 / 1백만원) : 우수동대세대주택 / 韓忠國 · 종합건축사사무소 증원건축

- 銀賞(상패 · 상금70만원) : 군자동주택 / 黃一仁 · 건축사사무소 일진 D연립주거단지 / 郭成文 + 조용식 ·

건축사사무소 두우

- 銅賞(상패 · 상금50만원) : 파천 3세대주택 / 孫明文 · 건축사사무소 건환 상일동빌라타운 / 姜聲益 · 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 獎勵賞(상패) : 일원동K씨택 / 宋光燮 · 건축사사무소 환건축 민씨택 / 金重業 · 김중업건축사사무소 평창동주택 / 鄭求段 ·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원H 빌라 / 禹南龍 · 가나건축사사무소

- 審査委員 委員長 : 安箕泰 委員 : 金枝泰 俞景哲 李榮一 李永熙 姜基世 安將元 李文雨

釜山支部消息

建築士設計作品展示會 盛了 2월16일 개막되어 5일간 계속된

建築士設計作品巡迴展示會의 釜山지역 전시회가 연7백68명의



'87경향하우징페어建築士設計作品 審査光景

협회소식

관람객을 기록하고 2월20일 폐막 되었다. 釜山지역 전시회는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建築士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서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간 집계된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開幕式 및 自祝小宴 참석 인사
 광정출 민정당국회의원, 김진재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 우상목 부산시 도시계획국장, 박치권 부산시 건설국장, 김성일 부산시 건축과장, 김종진 부산시 주택과장, 성훈섭 건축가협회 부산지부장, 박춘근 건축학회 부산·경남지부장, 박규열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김상호 삼아요업사 대표, 안기태 본협회 회장, 황재효·송기덕 이사, 정환호 부산직할시 지부장, 김택진·유광택·허선행·김규태 부산직할시 역대지부장

축하화환
 광정출 민정당국회의원, 성훈섭 건축가협회 부산지부장.

축하화분
 정주영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상년 건설협회 부산지부장, 김성철 전문건설협회 부산지부장, 박규열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이중호 국립부산개방대학장, 장성만 민정당국회의원, 유홍수 민정당국회의원, 윤석순 민정당지구당위원장, 김진재 민정당 지구당위원장, 김상호 삼아요업사 사장.

홍보
 • 육교현판...2개소 설치
 • 포스터...65개소 게시
 • 팸플릿...2백40장 배포
 • KBS-TV...개막현장 취재보도 (2월16일 지방뉴스시간)
 • MBC-TV...개막현장 취재보도



建築士特別教育 (大邱直轄市)

(2월16일 저녁 7시 지방뉴스 2월17일 밤11시뉴스) 현장 대담방송(2월23일 밤 10시45분 부산문화시간)

• 부산일보...문화면문화단신, 전시회개최안내 문화면 4단기사 사진기재, 건축설계작품 부산시 첫전시

大邱直轄市支部消息

'87제 1회 工事監理班회의 2월12일 오후 4시부터 대구건축사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지부장 의 工事監理班 28명과 대구직할시청 건축과 이준호 행정계장이 배석한 가운데 工事監理者 유의사항을 주제로 건의와 토의를 중심으로 한 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이준호 계장의 건축분야 전문부조리척결에 대한 정신교육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建築士特別教育 실시
 2월20일 오전 10시부터 지부장 의 회원 1백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자문위원 이원재씨를 강사로 건축사 특별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영창 대구직할시 건축과장도 배석 하였다.

光州直轄市支部消息

座談會 개최
 2월3일 광주일보사에서 임영배 교수(전대공대건축과), 김행신 교수(전대 예술대학), 이춘식 광주직할시 건축과장, 박희수 지부홍보위원, 류연창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직할시 건축문화 이대호가 좋은가>를 주제로 座談會를 개최 하였다. 座談會內容은 다음과 같다.

-먼저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 까지 산업화로 인하여 대도시 인구가 집중됐는데 이 당시의 光州 시내 주택양상과 건축물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林=6.25동란 이후 피난민들이 자기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그 시대에는 우선 기거하기 위한 소형주택들이

생겨났고 따라서 주거환경이 부족하여 불법건축물들도 많은 실정이었읍니다.
 ▲金=건축물의 외형은 시대성과 밀접하다 할 수 있겠지요. 60년대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정비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李=70년대 초반까지 光州시내 건축물 형태는 대부분 한옥이 주류를 이뤘으며 부속건물만 겨우 시멘트로 축조하는 실정이었읍니다. 이러한 한옥은 화재의 위험이 많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어 光州시에서는 한옥과 시멘트의 절충식 건축물 신축을 권장했지요.
 ▲柳=건축물 양식은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히 나타납니다. 60년대는 주거생활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신축했기 때문에 건축의 미적 감각이나 구조적인 면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지요.
 ▲朴=60년대는 우리나라 건축 예술의 공백기였다고 봅니다. 건축의 양식이나 건축의 질을 생각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주거생활의 방편으로서 무조건 집을 짓고 보자는 식이었지요.
 -60년대부터 光州시내 변두리 신흥개발 지역에 선보였던 이태리 식이나 볼란서식의 주택들이 光州의 건축문화에 끼쳤던 영향은.
 ▲林=「도시는 거대한 건축물이며 주택은 작은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光州의 지역실정은 주변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주택난이 심각하고 택지가 부족하여 신흥 개발지역에 이러한 명칭의 단독 주택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金=서구문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신흥개발지역에 이태리식 볼란서

식으로 호칭되는 주택들이 들어서게 됐지만 이러한 집들은 조형성이 없으면 물론 적은 공간에 조경을 한다는 개념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李=70년대까지는 光州시 당국의 도시개발 계획이 평면위주였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도시개발이 모색되지 않아 그러한 평면적인 주택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柳=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과 달리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해 공동개념이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지요.

좁더 휴식공간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옆집과 벽을 높이 쌓는 것보다는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하여 공동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朴=건축양식에는 불란서식 또는 이태리식이란 주택양식이 없습니다. 당시 주택난이 심해지자 집장사들이 신흥개발지역에 색다른 모양의 집을 지어 놓고 이러한 명칭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기후 조건과 자연환경에 모순된 주택 구조지요.

여름에는 하루종일 햇볕이 비쳐 더운가 하면 겨울에는 일조량이 짧아 한겨울을 춥게 지내야하는 모순점이 많았어요.

-녹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옥상에 조경을 하거나 해바라기식 배열의 아파트 신축이 光州도시 미관에 미친 영향은.

▲林=건축주들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별도로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구의 「광장문화」란 개념으로 옥상에 도시의 녹지공간을 형성하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옥상에 갖춘 조경은 시민 휴식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도시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평짜리의 적은 공간이라도 수도물이 나오도록하고 벤치를 설치해 누구든지 그곳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경을 갖추어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李=현재 光州시내 도심권에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당국에서는 현재 도심권에 있는 학교가 번두리 지역으로 옮기면 그 장소에 녹지공간을 갖춘 문화공간을 유지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을 넓힐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柳=현재 고층아파트가 光州시내 곳곳에 들어섰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중간층에 레저시설과 휴식 공간을 갖춰 아파트속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여겨집니다.

▲朴=행정법규로 옥상조경을 규제하다 보니 건축물과의 조화는 커녕 미관을 해치고 수종도 고려 않고 무작정 값싼 나무를 심고있어 옥상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검토 돼야 합니다.

-준공검사후 부속건물을 짓거나 알루미늄 샷슈로 조립식 가건물을 설치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林=현행 우리나라 건축법규는 너무나 규제가 심해요. 光州의 건축법규를 보더라도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도시문화는 지역특성이 짙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중앙에 편중되어 光州의 건축법규도 내무부 규정에만 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다보면 光州의 다른 모습을 잃게 됩니다. 당국의 조례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 돼야 하겠읍니다.

▲李=光州시 당국의 건축법규가 타이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규제가 많아서 건축주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앞으로

光州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柳=준공후에 부속건물이나 가건물이 늘어난 것은 건축주들이 건축법규 규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례를 들면 1천평방m를 짓게 되면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규정에 미달되게 설계 부락을 해서 건축비를 줄일려고 하는 실정이지요.

-건축물 외관의 조합과 상업용 건축물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은.

▲林=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잡하고 색다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지나치게 호화롭다든지 복잡한 것은 오히려 빨리 권태를 불러 일으킵니다.

▲金=건축물은 종합예술품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주택이라도 건축주의 주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조형상 복잡한 것을 탈피,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주택이나 건축물 허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光州의 도시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건축주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앞면을 대리석이나 순색 타일로 외장하도록 하며 벽돌위에 덧칠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어요.

▲朴=외장처리가 복잡하면 공사 일정도 길어지고 막대한 건축비가 들게 되지요. 세련되고 심플한 외장처리로 건축물의 기능을 어필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모건축물을 공사하면서 건축주가 지나친 외장 처리를 고집해서 설득하다못해 건축주 뜻대로 외장처리를 했는데 결국 건축주가 후회하더군요.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조형성과 구조의 설계를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光州직할시 승격후 지상(地上) 7층 이상이나 연면적 1천㎡의 건축물에 대해 총공사비의 1%에 해당되는 조형예술품을 갖추도록 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林=옥상조경이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남긴 것과 같이 다소 우려는 되지만 光州의 건축문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형예술품 확보도 지나친 규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光州도시 건축문화의 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柳=작품 배열을 위한 위치 선정과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건축물 준공을 앞두고 건축가와 작가가 서로의 예술성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읍니다.

▲朴=좀 늦은 감이 있지만 법이 뒷받침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조형예술품을 확보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축가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작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이제 우리는 직할시 원년을 맞아 2천년대의 光州건축문화를 위해 새로운 감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植樹誠金 전달

시가 범시민적으로 <푸른 도시 맑은 광주>를 가꾸기위해 벌이고 있는 植樹誠金 모금운동에 호응 1인당 1구좌 3천원씩을 거둬 모아진 1백 2구좌반 3십만 6천원을 2월21일 朴永燾 지부장이 회원을 대표하여 광주일보사에 전달 하였다.